

“식품산업 단지 확장 절실”

익산 식품클러스터 활성화로 2단계 추진 박차

익산시는 분양률 70%를 돌파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단계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을 시장과 전라북도, IH공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업체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식품클러스터 1단계 역량 강화와 기능보강, 추가 개발 사업 발굴 등이 포함된 활성화 방안과 함께 산업단지 확장(2단계)

타당성 논리를 제시했다.

시는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과 산업단지 확장(2단계) 논리 등을 정부에 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2단계 추진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기존 산업단지가 활성화된 후 추진 여건이 성숙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자는 의견이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

는 준공 이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분양공고 면적대비 75.8%의 분양률(116개사 분양)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기업에서 대규모 필지를 요구해도 제공 가능한 부지가 부족하여 산업단지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식품산업은 IT, 자동차 산업보다 2~3배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확장 사업이 절실하다”며 “산업단지 확장사업은 20대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는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위해 농촌체험마을에서 최장 6개월간 살아볼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진행한다.

미리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익산시, 귀농·귀촌 희망자의 농촌생활 체험... 성공률 상승

익산시는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위해 농촌체험마을에서 최장 6개월간 살아볼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진행한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은 농촌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일자리, 농촌 체험, 지역 주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최장 6개월간 지정된 농촌체험마을에 거주하며 계획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총 6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은 만 18세 이상 타 시의 동 지역 도시민(연접 시군구 주민 제외)이다. 구직급여 수령자, 가족 단위 참가

자, 귀농·귀촌 교육 이수자는 선발 시 가점이 부여된다.

참가자에게는 숙박비 및 연수 프로그램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월 30만 원의 연수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참가 신청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농촌에서 살아보기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가능하며 농촌체험마을 및 익산시의 각종 귀농·귀촌 관련 정보도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The-K에다합상조 공영장례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장이 무연고 기초생활수급 사망자의 명예 상주가 되는 공영장례업무협약이 맺어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The-K에다합상조와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사망 당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의 인수 거부 등으

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장례용품 공급 및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예정이다.

그동안 무연고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 후 화장 처리를 해왔었다.

이번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으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됐다.

특히, 시장은 전국 최초로 장례기간 동안 명예 상주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영장례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오송찬 The-K에다합상조 대표는 “가족 및 친지가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의 영면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장례 절차 없이 고인을 보내야 했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농업부산물 파쇄, 1석3조 효과

익산시가 농업인에 대한 농업부산물 처리비용 절감과 불법소각 방지 및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1석3조 효과를 거둔다.

그동안 농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콩대 등 농업부산물은 마땅한 처리방법이 없어 노천소각에 의존해 왔으나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9년부터 농경지와 하천변 등에서 성행하는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시 전체를 3개권역으로 나눠 영농전(3~5월), 가을 추수 후(10~11월) 5개월 동안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시는 농업부산물을 경작지 내에서 파쇄 처리하고 퇴비화를 유도하여 농업부산물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불법 소각행위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번 파쇄사업 신청 대상은 농업부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관내 영세농 또는 고령농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을 희망할 경우 청소자원과 ☎ 063-859-5412 및 각 읍면동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관내 소농 고령농으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당초 3월부터 실시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2월 21일부터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에 본격 돌입했으며 지난해 관내 403농가의 신청을



받아 무상 파쇄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부산물 처리에 애로가 많았던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며 “폐적한 농촌생활 환경을 위해서 절대 노천소각을 하지 말고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홀로그램 콘텐츠 활성화 지원

익산시는 홀로그램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당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해 신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홀로그램 리빙랩 서비스 지원사업은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홀로그램 분야 사업영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도 지역에 회사의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이 소재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공모형으로 전라북도 대표 산업군의 수요처를 포함한 홀로그램 리빙랩 서비스를 기업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익산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에서 홀로그램 리빙랩 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

지 모집한다.

한편,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는 전국 유일의 홀로그램 산업 지원기관으로 2020년에 개소한 홀로그램 관련 기술 및 장비, 리빙랩 운영, 홀로그램 제품 품질 인증·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총 20여개 홀로그램 기업과 업무협약을 진행하여 그 중 13개 기업이 익산시로 이점을 하였으며 국내 홀로그램 산업 활성화와 집적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사업 참여 신청은 3월 7일부터 11일까지 홀포털(http://hobportal.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063-837-3311)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지역 소식통

군산시, 4~5일 제20대 대통령 사전투표 실시

군산지역 27개 사전투표소에서 4일과 5일 전국 동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2일 군산시는 지역 27개 사전투표소에서 4일과 5일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어느 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군산의 경우 27개 읍·면·동 각 1곳씩 설치된다.

시간은 4일과 5일 양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2일차인 5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사전 투표소에 도착해 별도로 설치된 임시키오스크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투표시간을 연장한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공중화장실 '안심거울' 설치

군산시는 3월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 출입 시 뒤가 보이도록 비취주는 '공중화장실 안심거울'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내 140개소의 공중화장실 중 월명공원, 청암산, 관광지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체감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화장실을 선정, 깨지지 않는 재질의 거울을 제작하여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들어 여성 대상 물자마 범죄 등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하여, 범죄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막는 안전장치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또한 시공이 간편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큰 예방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거울'은 여성들이 공용 화장실에 들어갈 때 거울을 통해 위험 요인을 직접 확인하여 심리적 불안을 줄일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